

대만에서의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실정과 개선방향

曾天富 *

1. 머리말

최근 들어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중시되면서 약 반 세기를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만의 한국어 교육도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 교육이 외국어 교육에서 중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인인 학습자가 대상 언어의 문화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대상 언어의 기능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경우 문화 교육의 목표는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활동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체득하여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이를 실현함에 주어져야 한다.¹⁾ 문화와 외국어 교육의 상관관계는 무엇보다 언어가 살아있는 인간과 다양한 환경에서 각자의 가치관과 사고에서 비롯되는 의미를 주고받는 행위라는 인식이고, 문화는 그 의미를 엮어내는 가치관과 사고 등 많은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며, 외국어 교육에서는 그 요소들의 상이함이 모국어 화자들간의 소

* 臺灣 國立政治大學 韓國語文學科 教授.

1) 윤여탁, 「한국어 문화 교수 학습론」,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p.193 참고

통에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가치관과 사고의 산물로서 흔히 추상적인 것으로만 이해되던 문화가 실제로 상당한 구체성을 띠고 나타나기 때문에 문화를 통한 외국어 교육의 가능성과 필연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²⁾

이러한 시각에서 현재 대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을 돌이켜 보면, 우선 기능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의사 소통 능력의 함양에만 치우친 감이 없지 않으며, 설령 문화 교육을 병행하고 있기는 하되 단편적인 사실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사고의 방식, 표현의 원리 등 보다 심층적인 한국문화를 체득하게 교육하는 데는 소홀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즉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비중있게 다루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먼저 대만에서의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상황을 소개하고, 이어 한국어 교육이 기능적 목표의 달성 뿐 아니라 문화 충격의 경험, 각기 다른 사고방식 내지는 가치관과의 만남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며, 동시에 이를 통해 한국어 소통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기르게 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다 바람직한 문화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문의 견해는 전적으로 현재 일선에서 한국어 교육을 맡고 있는 필자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둔다.

2.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실정

현재 대만에서 행해지는 성인 대상 한국어 교육은 크게 정규교육기관과 민간단체로 구분된다. 전자는 국립 정치대학과 사립 중국문화대학의

2) 김정우, 「시를 통한 한국 문화교육의 가능성과 방법」, 『선청어문』29, p.174 참고.

한국어문학과와 그 외 각 대학에서 개설하는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정을 들 수 있고, 후자는 전국적인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인들의 평생교육을 이끌어 가는 각 지역의 社區大學(Community College)³⁾과 靑年服務中心 등 일부 학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을 들 수 있다.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이미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⁴⁾ 양적으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으나 90년대 들어 정식 국교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방면에서 양국간의 민간교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한국 IT산업의 독보적 위치, 한국 대중문화의 수입 등이 겹쳐 동일 분야의 수출에 의존하는 대만기업과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일반인들의 한국에 대한 흥미와 한국어 교육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 교육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 교육기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교재, 교과과정, 평가방식, 교수형태 등에 대한 통계 조사나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연구는 나와 있지 않다. 때문에 논의의 집중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 대상을 대학의 한국어 교육에 한해, 그것도 필자가 몸담고 있는 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 교육이 어떤 형태로 인식되고 시행되는지 그 실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3) 社區大學은 민간단체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 대만의 각 지역에 설립되어 있으며 호응이 좋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4) 한국어 관련학과는 1966년에 처음으로 국립정치대학 동방어문학과 소속의 한국어조(2000년 한국어문학과로 독립)와 뒤이어 1963년 중국문화대학의 같은 과 한국어조(1994년 한국어문학과로 독립)가 설립되어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 두 학교는 현재까지 대만 내 한국어 인재 배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한국어 교과과정 중의 문화 요소

앞에서 언급했듯이 뚜렷한 목표나 방향을 가지고 시행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어를 교수하는 과정에서 본문의 내용과 심화학습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학습자에게 인지시키게 되는데, 이 경우 문화 교육이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데 탁월한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화를 통한 외국어 교육이라는 본문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하겠다. 물론 이 경우에는 사용되는 교재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개별 교수자의 자질, 경험 등이 중요하지만 이를 모두 객관화하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기능 위주의 한국어 교수에서 교재를 통한 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교재를 통한 분석은 각 교육기관이 설정한 문화 교육의 목표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문화 교육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1) 실제 교재의 분석

우선 정치대학의 한국어문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근 몇 년간의 한국어(읽기), 한국어 회화(말하기), 한국어 실습(듣기), 한국어 작문(쓰기)의 교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최근 몇 년간 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

학년/과목 (학습목표)	한국어(읽기)	한국어회화 (말하기)	한국어연습 (듣기)	한국어작문 (쓰기)
1학년	㉠한국어1(고려대) ㉡한국어독본 1,2 급(연세대) ㉢韓國語1(北京 大)	㉠한국어1(서울대) ㉡한국어1(연세대) ㉢한국어회화 I(고 려대)	㉠한국어1(연세 대) ㉡Myōngdo's Korean Part I(명도원)	
2학년	㉠한국어2(고려대) ㉡한국어2(서울대) ㉢한국어독본 3,4 급(연세대) ㉣綜合韓國語(王 俊)	㉠한국어회화II(고 려대) ㉡한국어2(연세대) ㉢中級韓語會話 (曾天富)	㉠한국어2(연세 대) ㉡Myōngdo's Korean Part II(명도원)	㉠輕鬆學韓語 -句型 韓語1(林明 德)
3학년	㉠한국어3(고려대) ㉡한국어독본 5,6 급(연세대)	㉠한국어회화III(고 려대) ㉡한국어3(연세대) ㉢한국어3(서울대)	㉠韓國語視聽教 材III(曾天富)	㉠가나다 Korean for Chinese 중급 1,2(지사교육 사)
4학년	㉠한국어4(고려대) ㉡사랑과 지혜 그 리고 창조(안병욱, 正宇社) ㉢한국어5(연세대)	㉠한국어회화IV(고 려대) ㉡한국어4(연세대)		

대부분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이 중 몇 권을 추출하여 문화 요소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5) 그 이유는 증천부,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국어교육 연구』 7집 p.206 참고.

〈표2〉 최근 몇 년간 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에서 사용된 교재에 포함된 문화 요소

교재	포함된 문화 요소	비고
『한국어 1,2,3,4』 고려대학교 한국 어문화연수부, 민족문화연구소 (1990-1991)	숫자(한글, 한자)/가족명칭과 역할/한 국인의 생활습관/한국인의 성격(유행 에 민감, 뜨거운 교육열, 예의)/타국과 의 문화차이/민속놀이/옛날이야기6편/ 속담/언어습관과 의식구조/수필3편/소 설3편/시4편/사머니즘/동서양 점성술 의 차이/동서양화의 차이/단군신화/전 통문화와 효 사상/관용어	『한국어1,2』는 한국어의 기 초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대부분 현대 한국인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요소를 다루 고 있음.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는 『한국어4』에 집중되 어 있고, 옛날이야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함.
『한국어 1,2,3,4,5』 연세대학교 한국 어학당, 연세대 출판부 (1992-1994)	한국인의 이름/음식/숫자/예의범절과 존대말/서울의 역사/전통고찰/동요1편 /한국인의 현대생활(음식초대, 방문예 절)/명절풍속/미풍양속/속담/문화해설 (한국인의 자연관, 五福이야기, 한글 글자모양의 유래, 24절기, 책거리, 판소 리, 보부상, 君子三樂, 四端, 모깃불 이야기 등등)	『한국어1,2,3』은 한국어 언 어능력의 배양에 치중하여 유행연습이 매우 풍부하며, 『한국어4,5』는 「문화해설,란 을 본문과 문법설명, 유행연 습 뒤에 별도로 첨가하여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형식 을 취하고 있음.
『한국어 1,2,3』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 명지출 판사 (1980-1991)	인사/가족명칭/음식/바둑/교육제도/춘 향전/사회제도/전통복장/화투/생일과 회갑/결혼풍속/고궁/높임말/한국어의 한자소개/옛날이야기3편/세시풍속(1월 -12월)/농악/위인소개(孔子, 세종대왕, 이순신, 한석봉 어머니)/민속(지계)/한 민족의 유래와 역사/수수께끼, 속담/관 광지(부여, 제주도)/수필10편이상/시/ 시조소개/사설/설명문/논설문/희곡(원 술량)/고전소설(심청전)	『한국어1』은 한국인의 현대 일상생활에 치중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한국어2』는 한 국의 역사, 인물, 풍속에 대 한 소개가 많고, 『한국어3』 은 장르별 문학작품이 실려 명저서독을 방불케 한다. 현 대의 작품이 많고, 그 중에 서도 수필이 가장 많이 실 려있다.

위에서 보이는 요소를 문화의 분류별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
론 문화의 분류는 문화의 정의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지만 여기서는
Tomalin & Stempleski의 견해에 따라 소박하게 산물, 관념, 행위로 나누
고⁶⁾ 다시 시간성을 가미하여 현대와 이전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6) Tomalin Barry & Stempleski, Susan *Culture Awareness*, 조항록, 강승혜 「초급단계 한

여기서 산물은 문학, 미술, 민속, 음악, 가공품 등이고, 관념은 신념, 가치관, 제도 등이며, 행위는 관습, 습관, 옷, 음식, 레저 등을 포함한다.

〈표3〉 최근 몇 년간 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에서 사용된 교재에 포함된 문화 요소 비중

항목/문화분류	이전 산물	이전 행위	이전 관념	현대 산물	현대 행위	현대 관념
문화 요소	고궁, 고찰, 춘향전, 심청전, 흥부와 놀부 등 옛날이야기, 속담 등	세시 풍속, 미풍양속, 전통 의복, 전통 음식, 가족 관계, 전통 놀이, 생일과 회갑 등	효도, 예의, 범절, 가족, 호칭, 생일과 회갑 등	서울거리, 현대식 빌딩, 지하철 노선, 현대 문학 작품 등	손님접대, 스포츠, 여가활동 등	교육제도, 공공기관, 사회제도, 백화점, 이발소, 미용원 등
총항목 중의 비중	36/126	18/126	21/126	23/126	19/126	9/126
백분비	28.5%	14%	16.6%	18%	15%	7%

(2) 제기되는 문제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래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들 교과서가 따로 문화 항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출판일로 보아 1998년 이전의 것이 대다수인데 조항록, 강승혜의 조사에 의하면 1998년을 계기로 한국에서 출간되는 교재에서 문화 교육을 중시하고 이를 본문에서 따로 독립시켜 개별항목으로 교재 안에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⁷⁾ 위에서 든 교재 중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출판한 『한국어 4, 5』만이 「문화해설」란을 별도로 두고 한국문화를 소개하

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 요목의 개발(1), p.494에서 재인용.
7) 위 주와 동일, p.500 참고.

고 있다.⁸⁾ 따라서 교수자가 한국어의 읽기, 말하기 능력을 위주로 하는 과목을 담당하면서 본문의 내용 중에서 임의로 추출하여 문화 요소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경우 개별 교수자의 문화 교육과 외국어 교육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과 자질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객관적 효과를 명시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교재가 포함하고 있는 문화 분류별 비교에서 전통에 기반한 일상 생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이전 산물이 들어가는 항목이 많기는 하지만 이 중에서 제도나 유물, 정신과 같은 고급문화보다는 일상 생활에 치우친 감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초, 중, 고급 교재에서 체계적으로 소개되지 못하고 어느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문화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상관관계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재가 편찬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셋째, 초급단계에서는 한국인의 이름, 호칭, 가족, 음식, 식사예절, 지하철, 주요 전화번호 등이, 중급단계에서는 세시풍속과 미풍양속이, 고급단계에서는 고전, 현대 문학작품이 중복되는데 이는 교재편찬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다루어야 할 문화 요소 혹은 항목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없었음을 말해 준다. 다양한 항목의 마련과 요소의 삽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교수방법, 심화학습의 안내서가 필요하다. 이는 교수자를 재교육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위의 교재는 한국인을 교수 대상으로 설정한 관계로 외국인 교수자를 위한 안내서가 전무하다.

다섯째, 이들 교재가 모두 한국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자국의 문화와의 대조를 통한 한국문화 내지 한국어의 학습의 기회를 전혀 제공할 수 없다. 특히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들이 성인인 점을 감안할 때 자국 혹은 제3국과 한국과의 문화 대비는 한국어 학습에 상당한 이점을 가져 올 수 있

8) 『한국어 6』도 있으나 여기서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재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여섯째, 학습정도에서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문화 소개의 항목과 분량이 많아지는데 고급 교재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들 문화 요소가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지식의 나열에 그치고 있는 점이다.

(3) 한국어 교육에서 부딪히는 문화 차이의 구체적인 사례

필자는 지난 10여 년 간의 한국어 교육 생애에서 주로 초급 한국어(읽기)와 중급 한국어 회화(말하기), 한국어 연습3, 한국문학개론 등 과목을 담당해 왔는데, 초기 몇 년간은 현지의 기존 교재를 사용하거나 여러 교재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편집하고, 혹은 스스로 교재를 개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는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학습과정에 알맞게 편찬되어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교수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재교육을 받을 시간이 모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교재들은 현대의 한국사회와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교수하면서 느끼는 문화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하나 실례를 들 수는 없지만 그중 인상에 깊었던 몇 가지만을 소개하면, 우선 가족의 호칭에서 배우게 되는 '우리 엄마'이다. 중국인들은 '我(的)媽媽'라고 하는데 이 경우 '우리'와 '엄마'의 결합을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우리 아내(마누라)'라는 말을 소개하면 대부분 폭소를 터뜨리게 되는데, 이 때 교수자는 한국인의 집단 중심적인 민족성을 소개할 좋은 기회가 된다. 물론 한국인의 혈연, 지연, 학연 등 소집단 중심주의를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으며 중국사회에도 이러한 점이 있

다는 점을 아울러 상기시키고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이러한 언어 습관을 이해하게 유도한다. 또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혈연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여성이 자기보다 연장자인 남자를 '오빠'로 호칭하는데, 중국에는 나이가 비교적 많은 경우에 '---哥'라고 하여 이름 뒤에 오빠라는 호칭을 붙이거나 이름을 그대로 부른다.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연속극 등 한국 대중문화를 접한 학생들은 대체로 가족 호칭이 다른 이에게도 쓰이는 데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둘째, 문법에서 '비가 내리다'에서 '비가 주어가 되는 경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어에서 '下雨'로 '비'가 목적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가령, '꽃이 예쁘다', '차가 오다' 등이 '花漂亮', '車來了'로, '책을 보다', '음악을 듣다'가 '看書', '聽音樂'이기 때문에 '下雨'는 자연히 '비를 오다'로 오인하게 된다. 이 경우는 자연 현상에 대한 한민족과 중국민족의 다른 가치관과 해석을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언어 습관을 받아들일게 한다. 이런 경우는 적잖이 발견되기 때문에 문화의 다른 점에 대한 교육이 이후 한국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셋째, 초급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어디 아프세요?'라는 질문은 그 상황이 병원이 아닐 경우 학생들이 매우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중의 하나이다. 중국어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질문을 직설적으로 묻는 경우가 드물고 기껏해야 '怎麼啦! 你看起來有點不舒服?' 정도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성함(나이,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등을 통해 이미 한국어에는 완곡한 표현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어디가 불편하세요?'도 쓰이지만,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그동안 어디가 아프셨어요?'라는 질문은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매우 금기로 여기는 중국인으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경우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자국의 문화와 타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킬 필요가 있다.

그 외, 최근 들어 대만 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연속극 혹은 영화를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 그중 ‘한 잔 하러 갑시다’는 빼 먹을 수 없는 회사원의 일과로 그려지는데, 밥을 먹으면서 반주하는 정도에 그치는 중국인의 식습관으로서는 이 말의 빈번한 사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연속극 중 특히 두드러지는 존대어 문제도 문화 교육을 통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넷째, 한자어휘의 사용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沒死’가 대표적인데 ‘沒’이 현대 중국어에서 부정의 의미로 쓰이는데 반면 한국어에서는 여전히 고문의 ‘전부, 죄다’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적인 뜻이 된다. 또 ‘亡羊補牢’라는 관용어는 한국어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로 일의 시기를 놓쳐 소용이 없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데 비해, 중국에서는 ‘亡羊補牢, 猶時未晚’으로 비록 이번에는 일을 그르쳤지만 준비를 하면 다음에 대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미로 통용된다. 그 외 한자어휘의 품사 구별에서 중국어에서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인데 이때 학생들은 해당 한자어의 사용에서 곤란을 느끼게 된다. 가령 ‘책임을 호도(糊塗)하지 마라’의 ‘糊塗’는 중국어에서 명사나 형용사로만 쓰이고, ‘노력이 필요하다’, ‘떡이 먹고 싶다’ 등에서 ‘필요하다’에 해당되는 ‘需要’, ‘-고 싶다’에 해당되는 ‘想’은 중국어에서 목적어를 동반하는 타동사로 쓰이는데 한국어에서는 형용사로 쓰인다. 이런 경우는 양국이 동일한 한자어 혹은 비슷한 글자의 한자어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 현대 중국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고문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게 되거나 혹은 품사 등 문법적 측면에서 변화를 겪는데 비해, 한국어에서 쓰이는 한자어는 고문의 다중적 문법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국민족의 공통적인 생활경험, 미적 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진 속담이나 혹은 중국어와 비교하여 한국어에 특별히 발달된 감각어, 색채어, 의성어, 의태어 등의 교수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가령 ‘금강산도 식후경’, ‘호박꽃도 꽃이냐’ 등을 이해시키려면 한국의 자연과 생활환경 등에 대한 설명이 가해져야 하고, 중국어에 거의 없는 의태어는 뜻과 유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양국 문화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되도록 풍부한 자료를 준비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 든 예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며 외국어 교육에 있어 문화교육의 중요성과 문화 교육이 외국어 습득에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문화 차이 혹은 문화 충돌이 있을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되, 편견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며 되도록 여러 민족의 문화차이를 예로 들어 충분히 납득시키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문화관련 과목의 개설과 문제점

앞에서 든 예는 한국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키는 과목에 한해 이에 포함된 문화 요소를 살펴 본 것이고, 여기서는 이들 과목 외에 별도로 한국사회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설계한 과정을 통해 한국 문화 교육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정치대학교와 문화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문화 관련 과목을 일람하면 아래와 같다.

〈표4〉 현재 정치대학과 문화대학의 한국어문학과에 별도로 개설된 문화관련 교과과정

과 목 명	학 교 별	주요 개설 목적
韓國文化概論	政治大學	한국의 풍속, 언어, 예술, 학술, 사상, 종교 과학기술, 정치, 경제 등의 학습을 통해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韓國文化史	政治大學, 文化大學	한국 문화의 어제와 오늘, 특징과 내용을 소개
韓國歷史/韓國史	政治大學/文化大學	한국의 역사와 고적에 대한 이해 증진
韓國社會與文化	政治大學	한국의 과거와 현재 사회를 통시적으로 고찰
韓國地理	政治大學	한국의 지리 분포와 각 지방의 특색을 고찰
韓國社會	政治大學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변모와 북한 문제에 대한 고찰
韓國名著選讀	政治大學, 文化大學	고금명저를 통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韓國文學概論	政治大學	한국문학의 장르별 문학작품을 개관하고 감상능력을 기름
韓國文學史	政治大學	한국문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작품 감상능력을 기름
韓語園地	文化大學	일반 서적 이외 한국 문물, 가요 및 영상매체를 통한 한국의 전반적 이해 증진
韓語俗諺/俚諺	文化大學	생활경험의 결정인 속담과 속어를 통해 한민족의 사상, 의식, 가치관 등을 이해
韓國民俗學	文化大學	세시풍속, 민간예술, 민속놀이 등을 포함한 한국 민간풍속 소개

이를 통해 양교에서 공히 역사, 풍속, 사회현상, 문학을 포함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과목은 개설목적에서 보이듯이 당연히 한국어 언어 능력의 배양과는 다른 학습목표를 두고 개설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생활습관과 사회현상을 교수 학습한다는 점에서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이들 과목의 개설과 실시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심지어 폐지하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개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령 정치대학의 경우, ‘한국문화사’ 과목은 필수였으나 지금은 선택으로 바뀌었고, ‘한국문학사’와 ‘한국문학개론’ 과목도 격년으로 개설하며 둘 다 역시 선택이다. 문화대학의 경우도 원래 개설되었던 ‘한국문학사’ 과목이 몇 년 전부터 ‘한국문화사’로 통합되었고 상기 거의 모든 과목이 선택으로 개설되고 있다.

학생들의 소극적인 반응 외에 이들 문화 관련 과목은 대부분 자국어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들 과목이 비록 한국어의 언어적 능력 배양과는 다른 학습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국어로의 강의는 기본적으로 문화를 일종의 습득과 저장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⁹⁾ 물론 역사, 문물, 민속을 포괄하는 문화를 소개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하지만,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문화들이 단순히 단편적 지식의 습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문화 관련 과정이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어렵게 설계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 과목의 개설은 한국관련 전문인의 양성은 물론 고급 한국어 인재의 배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나아가 한국어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령 교과과정의 설계와 배치, 교재내용의 선택과 편집에서 기존의 단편적 문화지식 전달 수준에서 벗어나 최소한 한국어 학습과정과 연계성을 갖도록 시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9) 가령 ‘한국문화개론’ 과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1.문화서론, 2.한국문화의 기원, 3.한국문화의 전파, 4.한국문화의 특징, 5.한국문화의 대외영향, 6.한국의 학술사상, 7.한국의 제도, 8.한국의 문학예술과 문물, 9.한국의 과학기술, 10.한국인의 생활방식과 풍속습관으로 문화가 무엇인지 대한 정의로부터 한국의 모든 문화 형태와 현상을 포괄하고 있다.

3. 대안 모색과 개선방향

1) 교재문제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중시되는 이유는 문화적 능력이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과정에서 흥미와 동기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의 교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문화 교육이 한국어 언어 기능의 습득에 도움이 되게 편찬된 교재가 우선되어야 한다. 앞서서도 보았듯이 현재 대만에서 쓰이고 있는 교재는 대부분 문화 항목을 마련하지 않고 개별 교수자가 본문이나 유형연습 등의 내용에서 문화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언어 능력과 문화 내용을 알맞게 배합하기 어렵고, 전적으로 교수자의 자질과 태도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선 본문과 관계를 가지는 문화 항목 내지는 문화 요소를 따로 배치해 학습자와 교수자가 이를 본문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대만에서 쓰이고 있는 한국어 교재는 대부분 한국에서 나온 것으로¹⁰⁾ 한국인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때문에 우선 이들 교재가 문화 내용을 적절히 담고 있다 하더라도 교수자가 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대만에서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어 교재 개발이 어려워 한국에서 간행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수자를 위한 안내서가 필요하리라 본다. 대부분 세계 각국의 한국어 교수자들은 정식교육기관일 경우 한국어를 전공하고 다년간 유학을 다녀온

10) 일반 학원에서는 초급 단계에서 중국어 해설이 있는 현지 출판 교재를 사용하지만 이들 교재는 대부분 후속 과정이 체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대부분 곧 한국에서 나온 교재를 사용하게 된다.

현지인이고, 사설 학원일 경우 현지에서 체류하거나 학업 중인 한국인일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들은 시간적, 공간적인 제한으로 인해 낯이 변모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적절히 알기 어렵고, 설령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수시로 한국사회나 문화변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한국어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교재개발 시 적절한 교수지침서 혹은 안내서가 동시에 개발된다면 외국인 한국어 교수자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상술한 두 가지 문제, 즉 체계적인 문화 항목의 배치, 적절한 안내서 편찬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더욱 이상적인 교재는 현지문화, 혹은 제삼국 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세계 각 민족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교재개발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초급단계에서 만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언어권별로 현지 학자와의 합작을 통해 각 국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한국어의 언어능력을 최대한 제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우선 교재 편찬에 앞서 한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이 앞서야 한다. 한국어 문화론은 한국어의 언어능력 배양에 문화 교육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구성되어야 하므로 한국어의 단계별 학습목표에 맞추어 문화 내용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전자는 그동안 누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할 수 있겠지만 후자는 연구개발이 시급하다.¹¹⁾

그 외, 이러한 평면 교재 외 인터넷, 대중매체, 시청각 영상자료의 적절한 활용도 있어야 한다. 현재 대만의 경우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물

11) 민현식 교수가 든 한국 문화 10대 항목, 50대 항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민현식, 「국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국어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등 논문을 참고.

론 한국의 연속극(역사물 포함), 영화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물론 원음으로 방송되는 것은 많지 않지만 적어도 한국 문화와 현대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매체의 활용은 자칫하면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잘못된 언어 습관을 갖게 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필자가 한국영화를 교재로 하여 일년간 실험해 본 결과 생생한 현장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장점 외에 적절치 못한 언어 구사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밖에 한국 문화가 녹아있으며 동시에 미묘한 언어 차이를 실감케 해 주는 문학 작품의 적절한 활용 역시 교재개발의 긍정적인 방향이라 하겠다. 이는 한국어의 문체, 어감을 학습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한국어에 특히 발달된 색채어, 의성어, 의태어 등의 학습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아울러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를 느끼게 해 주는 좋은 교재이다.

2) 교과과정 문제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재 외 문화 교육의 명확한 목표와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문화 교육은 문화에 대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의 신장이라는 기본적인 인식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 목표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문화 내용은 언어 능력에 따라 분류하고 단계적으로 언어 학습에 관련되는 문화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그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초급단계》

〈초급 한국어 교육의 목표〉

- 한국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한국어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 일상생활에 관한 말과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문화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 한국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한국 문화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초급단계 문화교육의 내용〉

- 한글에 대한 기본적 이해
- 인사, 소개, 언어예절
- 식사예절, 주거생활
- 지리, 기후, 문물
- 가족관계, 신체 언어
- 일상적 행동 유형

《중급단계》

〈중급 한국어 교육의 목표〉

- 한국어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활용한다.
- 한국인들의 행동양식과 의사소통 요령을 터득하여, 일반적인 화제에 관해서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의사 소통을 한다.
- 한국어의 언어 표현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이해한다.
- 한국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을 통해 한국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해한다.
- 한국의 사회제도와 풍습을 이해한다.

〈중급단계 문화 교육의 내용〉

- 여가생활, 오락문화
- 개인별, 집단별 갈등
- 명절 풍습
- 문학작품
- 속담, 관용어
- 사회제도, 교육제도
- 예술적, 문화적 업적

〈고급단계〉

〈고급 한국어 교육의 목표〉

- 한국어로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의사 소통을 한다.
- 일반적 주제 및 추상적인 내용의 말이나 글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이해한다.
- 학술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한다.
- 인물, 사건, 사물을 정확히 묘사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넣어 설명하는 글을 쓴다.
-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적 특성을 바르게 소개한다.

〈고급단계 문화 교육의 내용〉

- 역사적 사건, 인물, 문화유산
- 종교, 가치관, 세계관
- 문화비교
- 정치, 경제, 사회문제
- 방언의 차이, 언어변화

여기서 든 예는 기존 연구를 정리한 것인데,¹²⁾ 한국어 언어능력과 문화

교육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긴밀하게 통합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 내용은 한국 문화뿐 아니라 가능한 한 여러 나라의 문화를 포함하는 것이 좋고, 현대 문화와 과거문화를 적당한 비율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교수자와 교수방법 문제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적절한 교과과정과 좋은 교재가 마련됨과 동시에 교수자의 인식과 교수방법이 또한 중요하다. 우선 교수자는 우수한 한국어 능력을 갖출 것은 물론이고 자국 문화와 한국문화, 나아가 기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상호 대비하여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언어가 사고방식과 직결되어 있음의 깊이를 인지하고 학습자의 문화 충격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대만의 경우 대학에서 초급단계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자 대부분이 현지인이며, 비록 이들이 한국어 전공자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한국 문화와 사회를 지속적으로 접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수자 개인의 재교육이 열린 시각의 확보, 문화의 역동성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중시되어야 한다.

교수자 자신의 노력과 문화 교육의 중요성 인식 외 교수방법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수방법은 일반적인 외국어 교수이론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부단히 발전해 왔다. 현재 정치대학의 경우 각종 한국 신문과 잡지, 서적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완벽한 시청각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문학과 내에도 영화, 드라마 등

12) 한국어 교육의 단계별 목표는 이지현, 「한국어 교육의 문화교육 내용연구」, p.29를, 단계별 문화교육의 내용은 장경은,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실현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25, p.442를 참고한 것임.

대중 오락물,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시청각 매체가 소장되어 있어 나날이 높아 가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여기서 교수방법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방향만 간추려 보면, 초급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낯선 문화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보임과 동시에 기본적 의사 표현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화 차이로 오는 문화 거부감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노출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중급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문화 충격을 경험하는데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문화 비교를 통해 문화 차이를 이해하게 하고 이를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 좋다. 고급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문화충격에서 회복되어 한국 문화를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 때 교수자는 정치, 사회, 사회문제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으로써 학습자가 한국 문화의 현상과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게 돕는다.

어떤 단계에서든지 교수자는 언어적 간섭이 문화적 간섭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런 관점에서 언어적 내용을 분석하며, 외국문화와 학습자의 문화를 비교, 대조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되도록 가치판단을 배제하여 학습자가 오해 없이 사실적, 객관적으로 인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 맺음말

본문은 필자의 그간 한국어 교육 경험에서 나온 원칙적인 시론에 불과하다.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그간 풍부한 이론의 제기와 많은 실제 조사가 병행되어 이미 외국어 교육에서 확고한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성과로 보아 한국어의 기술별

능력,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문화 교육의 통합적인 연계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론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바람직한 교재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서 누누이 지적했듯이 세계 각국의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수자의 문화와 외국어 교육에 대한 기본적 인식 외에 적절한 교재와 교수방법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한국어 언어학습과 문화 내용을 통합시킨 교재가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작권법 등 보급상의 문제와 내용상 한국 문화에 대한 일방적 이해요구, 교수자를 위한 안내서 미비로 인해 예기하는 목표에 도달하기는 역부족이다. 그 외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대학의 한국어문학과에 개설된 문화관련과정과 한국어 교육과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 내지 통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주의를 요하는 항목이라 생각된다.

비록 본문에서 언급한 개선 방향이 하루아침에 달성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동일 방향으로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현 교재와 교과과정에서 요구되는 문화 요소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다면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데 문화 교육이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참고 문헌

- 김대행(2000), 한국어 교육 발전 방향, 「외국인을 위한 韓國語教育研究」 제3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김정우(2001), 시를 통한 한국문화 교육의 가능성과 방법, 「선청어문」 29집, 서울대 국교과.
- 민현식(1996), 국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어교육」 7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3), 국어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0(2).
- 박갑수(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 배경, 「선청어문」 26집, 서울대 국교과.
- 박노자(2000), 한국문화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어교육」 제11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영순(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월인출판사.
- 성기철(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제12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윤여탁(2000),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 「국어교육연구」 7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윤여탁(2002), 한국어 문화교수 학습론, 박영순(편저),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이지현(2003),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내용연구-초급단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은(2001),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실현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 26 (구 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조영미(20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화학습 연구-한국어 화자와의 문화간 의사소통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항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9,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항록(2000), 초급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항록, 강승혜(2001), 초급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 요목의 개발 (1), 「한국어교육」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항록(2002),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주요 쟁점과 과제, 박영순(편저),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증천부(2000),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재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국어교육 연구」제7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